

스탈린과 소비에트 고려인

- 송 잔나 그리고리에브나
러시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요약>

이 발표문은 1937-1938년에 최고조에 달했던 소련의 파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에트 고려인들은 다른 소비에트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발표자는 스탈린의 정치적 탄압과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1930년대 원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소련 당국으로 하여금 고려인을 “일본을 위한 스파이”로 기소할 수 있게끔 하였다. 원동에서 주요한 국제적 상대방으로 일본을 상대하면서, 소비에트 정부는 이 신화를 인식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동시에 소련의 내무인민위원부(NKVD) 스탈린의 지원 아래 예조프의 지도로 원동에서 고려인을 추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 탄압은 하나의 목표에 종속되었다. 바로 전체 고려인을 “일본 스파이”로 고발하는 것이었다.

키워드: 소비에트 고려인, 정치적 탄압, 강제이주, 소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에서 근본적인 민주개혁이 시작된 지 25년 이상이 지났다. 법치국가의 주요한 기능적 하위 시스템의 개혁 이외에도, 문화-이데올로기의 하위 시스템도 변경되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고 의무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는 상황을 거부하게 되었다. 다원적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차 민주적 가치체계가 사람들의 마음에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은 모순적이다. 한편으로는 일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과 경험의 부족, 다른 한편으로 경제 위기의 장기화, 대다수 주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 급격한 사회 분화, 올리가르흐(과두정치집단)의 중요 자원 독점 등은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과 효율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민주개혁 시행의 심각한 결점과 실수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당과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왜곡이 나타났다.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학적 조사에서 스탈린의 인기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2] "사회학자들은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스탈린의 인기의 상승을 기록했다"[9] 라는 간행물은 지난 5년 동안 스탈린의 탄압을 범죄로 간주하는 러시아인의 수가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베도모스치」지에 실린 “레바다센터(Levada Center)”의 조사는 그런 사람이 39%이고 반대자가 51%임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38%는 스탈린의 탄압을 “정치적 필요”로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했다. 2012년 10월에는 이 관점을 고수한 러시아인이 22%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역사의 이 시기를 온전히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년 전에는 응답자의 37%가 “말을 덜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49%는 “역사를 잊지 말라”고 했다.

이제는 비율이 반대이다. 47%는 침묵이 옳다고 생각하고, 38%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응답자의 36%가 스탈린 시대에 달성한 높은 성과로 사람들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 단지 26%만이 스탈린을 국가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A.그라즈단킨 “레바다센터(Levada Center)” 부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 러시아인들은 (정치적) 탄압에 대해 더욱 무관심해졌다. 서방과의 문제가 발생했고, 소비에트의 신화에 해당하는 강인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스탈린 비판의 수준도 낮아졌다.

일부 러시아 도시에서 주로 공산주의자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스탈린기념비 건립을 최근 들어 점점 더 자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16년 2월에 프스코프주에 스탈린의 흉상이 설치되었고, 올해 4월에는 쿠반 벨로레첸스크에 있는 행정부 건물에 스탈린의 초상화가 걸렸다. 장식되었습니다. 역시 4월에 수르구트에서도 "스탈린화" 지지자들이 시장과 함께 지도자(스탈린)의 흉상 설치에 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

이는 참을 수 없고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분명히 현재 러시아 사회는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인이 경험한 기타 정치적 격변 등 1990년대 사건의 결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컨퍼런스와 원탁회의를 열고 있다. 주요한 러시아의 연구센터에서 "스탈린주의"라는 주제는 여전히 화두 중 하나이다. 2016년 10월 24-26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스탈린주의의 역사"에 대한 9번째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다. 2016년 회의의 주제는 <소련의 문화와 권력. 1920-1950년대>였다. 2017년 5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러시아역사연구소에서 <1937년의 비극: 80년 후>라는 제목의 원탁회의가 열렸다.. "대테러(대숙청)" 연구의 현재 수준과 전망이 주제였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학자-전문가들이 "테러와 사회", "탄압당한 외국인들", "탄압과 군사산업", "불가강 유역의 대테러"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에서는 “스탈린주의의 역사”에 관한 정기 학술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등등.

러시아 역사와 관련하여 러시아 사회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A.그라즈단킨 “레바다센터(Levada Center)” 부소장에 따르면, 탄압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열망이 사라지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데, 이는 변경된 현재 의제와 관련하여 역사에 대해 또 다르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러시아가 서방과의 화해의 길에 있던 동안, 소비에트 시대에 대한 태도는 더 비판적이었다. 길이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다른 의식 구조가 동원되기 시작했다. 스탈린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태도는 2012년 정권에 대한 비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을 때 가장 강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면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감소했다.”[7] 메모리얼의 회원인 역사가 니키타 페트로프는 이러한 사건과 역사적으로 거리가 멀고 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전달받지 못한 세대가 성장했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젊은이, 학자 그리고 지식인 사이에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긴급한 방책이 필요하다. 소비에트 시대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여주고 스탈린주의 탄압을 범죄로 표현하지 않는 책의 출판을 중단해야 한다. 역사가와 사회운동가의 주요 임무는 비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소비에트 시대 역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어야 한다.

고려인 -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 1920-1953

러시아 역사와 러시아인의 삶에서 새로운 단계는 1991년 4월 26일자 “탄압받은 인민의 복권에 관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국가법령 No.1107-1과 1991년 10월 18일자 “정치적 탄압 피해자의 복권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령 No.1761-1(1992년 6월 26일 No.3130-1)이 채택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다렸다. 정치적인 이유로 예방적으로 기소되어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과 강제로 추방되었던 구소련 인민들은 복권되었고, 내면으로부터 자유와 정의를 느꼈다.

1991년 10월 18일자 “정치적 탄압 피해자의 복권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령 No.1761-1(1992년 6월 26일 No.3130-1)에 따라 4,051,903명이 복권되었다. 그중에 최고형을 받아 총살에 처해진 사람은 779,257명이었다. 법령에 따라 1921년부터 1952년까지 소련 내무부 제1특별과[3]로부터 기록보관자료들이 수집되었다. 복권된 시민들 중에 고려인도 6,385명이 확인됐다.[8: 263-264쪽]

<표 1>은 V.N. 젤스코프[3]가 편집한 반혁명 및 기타 특히 위험한 국가 범죄(1921-1953)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에 대한 통계이다. 마지막 열에는 탄압받은 고려인[8: Ibid.]에 대한 통계가 있다.

<표 1> 반혁명 및 기타 특히 위험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1921-1953)

연도	사람 수(명)	분류				고려인 수
		최고형	수용소, 감옥	유형, 추방	기타	
1921	35,829	9,701	21,724	1,817	2,587	14
...						
1930	208,069	20,201	114,443	58,816	14,609	64
1931	180,696	10,651	105,683	63,269	1,093	171
1932	141,919	2,728	73,946	36,017	29,228	246
1933	239,664	2,154	138,903	54,262	44,345	243
1934	78,999	2,056	59,451	5,994	11,498	132
1935	267,076	1,229	185,846	33,601	46,400	261
1936	274,670	1,118	219,418	23,719	30,415	208
1937	790,665	353,074	429,311	1,366	6,914	1,436
1938	554,258	328,618	205,509	16,842	3,289	2,774
...						
1946	123,294	2,896	117,943	1,498	957	140
...						
1953	8,403	198	7,894	38	273	27
합계	4,060,306	799,455	2,634,397	413,512	215,942	6,385

이 표는 전체 기간 중에 탄압의 물결이 멈추지 않은 추진력을 얻은 연도를 보여준다. 복권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체포된 고려인의 51.5% 이상이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최고형을 선고받고 총살(3289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는 25년까지 노동수용소에 수감(49); 0.4%는 20년까지(28); 0.5%는 15년까지; 16.2%는 10년까지(1034); 6.7%는 5년까지; 4.7%는 3년까지(301); 2.1%는 유형 또는 추방(133); 2.6%는 조사 중 사망하거나 1년 이상 조사를 받다가 석방되었다(165). 8.2%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정가보 없고(525); 6.3%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석방되었다.(401) [4]

역사학과 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 분류[1:42]에 따르면, 탄압을 겪은 소련의 다른 모든 민족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고려인 공동체의 대표자들 역시 나열된 모든 범주에 포함되었다.

1932년 이후로 첩보활동이 세분화되었다 : 폴란드, 루마니아, 중국,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독일, 영국, 아프간, 페르시아, 체코슬로바키아, 터키, 불가리아,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스웨덴 등으로 .

많은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중앙(센터)은 소련에서 일본 스파이를 찾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시민을 일본 스파이로 보았다. 1933년 243명의 고려인이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8: 263-265쪽]. 1934년에는 모두 5,462명이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일본을 위한 스파이 290명 중 고려인이 조선인 132명이었다. 1935년에는 일본을 위한 스파이 1,262명 중에 고려인이 261명이었다.[8: ibid.].

1937년에 소련 형법 58조 1, 2, 3, 5, 6, 193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93,890명을 헤아렸다. 이중 일본 스파이로 인정된 45,302명 중 고려인은 1,436명이었다. 1938년에는 각각 171,149명과 34,565명 중 고려인은 2,774명이었다.[8: ibid.].

체포된 사람들의 출신지는 러시아 1,829명, 조선 3,984명, 중국 307명, 일본 29명이었다. 236명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연령 구성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44명, 18세~25세 850명, 26세~35세 1,910명, 36세~60세 3,030명, 60세 이상이 284명. 267명은 정보가 없다.[4: 8].

고려인들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을 포함한 소련의 7개 공화국, 10개의 자치 공화국,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4개 변강과 34개 주에서 체포되었다. 가장 많은 고려인이 탄압을 받은 곳은 카자흐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으로 2,215명이었다. 원동주에서 1,922명이 탄압을 받았고, 우즈베크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352명, 키르기즈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73명, 카라스노야르스크변강-292명, 이르쿠츠크주 213명, 모스크바주 174명, 치타주 167명, 스페르들로프주 163명, 북카프카스변강 137명, 알타이변강 86명, 레닌그라드주 66명, 톱스크주 56명, 기타 공화국과 변강 그리고 주(41개 지역)에서는 1명에서 29명이었다. 요약된 통계는 <표 2>를 참조.

<표 2> 소련 내무인민위원회부(NKVD) 기관에게 체포되어 유죄를 받은 고려인 수에 대한 정보(1920-1953년)

지역	인원
벨라루시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2
그루지야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카자흐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2,215	
악튜빈주		261
악몰린(첼리노그라드)주		35
알마-아타주		594
아티라우즈주		101
동카자흐스탄주		28
잡불주		34
서카자흐스탄주		57
카라가단주		61
크즐오르다주		547
쿠스타나이주		192
오렌부르크주		6
파블로다르주		88
북카자흐스탄주		50
남카자흐스탄(침켄트)주		161
키르기스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73	
우즈벡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352	
우크라이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8	
바쉬키르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부랴트-몽골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다게스탄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카렐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7	
코미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7	
마리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북오세티야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타타르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1	
투바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2	
야쿠츠허자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2	
알타이변강	86	
오이라트자치주(고르노-알타이)		50
원동변강	1,922	
연해주		759
우수리주		477
하바롭스크주		268
유태인자치주		63
아무르주		77
사할린주		278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	292	
하카스크자치주		154
북카프카즈변강(크라스노다르주, 오르조니키제프(스타브로폴)주, 로스토프주)	137	
아르항겔주	2	

아스트라한주	10
고리코프주	8
이바노프주	1
이르쿠츠크주	213
칼린스크주	1
케메로프주	2
키로프주	1
쿠이비셰프주	7
쿠르간주	4
쿠르스크주	3
레닌그라드주	66
리네츠주	7
마가단주	8
모스크바주	174
무르만스크주	9
노브고로드주	1
노보시비리주	12
옴스크주	29
오를로프주	1
페름주	7
프스코프주	2
라잔주	2
사라토프주	2
스베르들로프주	163
스몰렌스크주	9
스탈린그라드(볼고그라드)주	17
툼스크주	56
톨라주	6
튜멘주	8
울라노프주	7
첼라빈스크주	24
치타주	167
야로슬라브주	8
정보 없음	179
합계	6,385

출처: 『고려인 - 소련에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 1934-1938』 1-14권;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 목록” <http://www.memo.ru/memory/spiski.htm> (2009년 6월 8일 검색); “스탈린주의 목록” <http://stalin.memo.ru/images/intro.htm> (2009년 6월 4일 검색)

1938년 소련에서 일본으로 탈출한 후 심문 중에 G.류쉬코프가 말한 체포된 고려인 2,500명의 이름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표에 따르면, <표 2>에 따르면 1,922명의 고려인이

전체 기간 동안 원동변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G.류쉬코프가 소련에서 1937-1938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고려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고려인의 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1930년대 원동에서의 사건 전개는 소련 정부가 고려인을 “일본 스파이”로 고발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원동에서 주요한 국제적인 적국인 일본과 게임을 하면서, 소비에트 정부는 사회 모든 방면에서 이 신화를 인식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동시에 N.예조프가 지휘하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NKVD) 기관은 I.스탈린의 지원 아래 고려인들을 원동지역으로부터 강제이주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었다.

1937년 원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강제이주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소비에트 인민을 이주시키는 정책은 1920-1950년대 국가 민족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1925년부터 시행된 계획적인 이주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난한 계층의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성급한 결정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새로운 장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비용은 노동력으로 보충되지 않았으며, 국가 경제는 이주 정책에서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36년 6월 10일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소련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련 인민위원회 산하 전연방이주위원회의 업무는 내무인민위원회 굴락(ГУЛАГ, 수용소관리부)으로 이관되었다. 소련 인민위원회 산하 전연방이주위원회 사건 수용에 관한 법률에는 1933년부터 1936년 7월까지의 작업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전연방이주위원회는 65,700가구를 이주시켰는데, 이 중 37,528가구(이주자의 57%)가 귀환하였다. 정착지에는 28,183가구(43%)만 남아 있었다[5].

이주 과정은 소련 고려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고려인의 이주 문제는 1928년 4월 소련 노동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고려인은 연간 이주 계획에 포함되었다. 고려인은 노동력으로서 자발적으로 전문직으로 이주하여 탄광, 금광, 광산, 농업에 종사하였다. 고려인조합은 무르만스크, 툴라, 오이로트, 북카프카즈변경 뿐만 아니라 카자흐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우즈베크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키르기즈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에서 일했다. 고려인들은 홀로 또는 가족 단위로 또는 조합 노동자로 소련 곳곳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유학을 갔다.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의 활동은 자발적인 이주의 비효율성을 보여 주었고, 상당한 인구의 재정착에 소비된 거대한 국가 재정은 계획된 이익을 가져 오지 못했다. 이주자의 접수, 주택 및 기타 중요한 생활조건을 처리할 조직 구조가 부족하여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헤매거나 애초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1936년 소련 전연방이주위원회의 업무가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굴락(ГУЛАГ, 수용소관리부)의 이주과로 이전된 후 자발적 이주정책은 소련의 모든 인민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1937년 가을,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되었다. 이 행동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최고 권력층에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고려인을 어디로 보낼지 엄격하게 분류하여 준비되었다. 그 이유는 1937년 7월 7일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사실 고려인의 운명은 1937년 훨씬 이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러일관계의 외교정

책과 관련이 있었다. 러시아로 이주 초기부터 고려인들은 러시아 세계로 받아들여졌고, 고려인들을 돌려보내 달라는 일본의 엄격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르 러시아나 I.V. 스탈린을 막론하고 러시아 당국은 근면한 고려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 문화에 동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차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도 고려인의 이주는 계획되었으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고려인의 이주 문제가 결정되던 19세기 말과 1911년, 1921년, 1923년, 1928년, 1933년에는 자금이 부족했다.

역사의 페이지에는 고려인들이 이주의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자발적 이주를 위한 자금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은 적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1937년까지 1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연해주를 벗어나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전체 영토에서 살고 있었다.[6]

고려민족의 최고위 당엘리트들은 고려인의 대규모 이주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소문과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려인들에게 1937년 가을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고, 소련 정부의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다. 지도자 I.V. 스탈린을 진심으로 믿었던 고려인들은 이것이 그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많은 고려인 콜호즈의 당 회의에서 “고려인 공민의 권리와 소련 민족정책의 명백한 침해”라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 지도자들은 즉시 체포되었다. 연해주 내무인민위원부(NKVD) 책임자는 이주에 저항한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트로이카”의 법정에 세워 수용소 수감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허가를 중앙으로부터 받았다.[8: p. 424]

1937년 가을은 고려인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도덕적, 심리적 시련을 가져다주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8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기억이 시간보다 더 강력하게 남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탄압의 몰록¹⁾에서 사망하고 강제이주의 고난에서 살아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 강제이주의 문제적 측면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똑같이 중요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접경지역에서 국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고려인들이 원동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있었을까?

국경과 가까운 원동에서 정치적 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고려인들이 연해주에 남아있었다면, 그때 그들의 운영은 어떻게 되었을까? 조선인들이 연초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94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고문헌>

1. 소련 인민대표대회와 소련 최고 소비에트 관보. 1989. No.3. 449쪽(『러시아 인민의 복권 - 문서 모음집』. 모스크바, 2000, 42쪽..)
2.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스탈린의 탄압을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17년 6월 21일). <http://www.newsru.com/russia/23may2017/stalin.html>

1) 몰록(моллох) - 고대 중동의 신.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숭배되었으며, 바빌로니아 지방에서는 명계의 왕으로, 가나안에서는 태양과 천국의 신으로 알려졌다.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공양 제의가 행해졌다고 한다.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 역사 주

3. V.N.젠프, 「소련의 정치적 탄압: 실제 규모와 추정의 구성」 (2017년 7월 12일)
<http://www.politpros.com/journal/read/?ID=2816>
4. 『고려인 - 소련에서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 1934-1938년』 1-14권; 정치적 탄압 피해자 명단 <http://www.memo.ru/memory/spiski.htm> (2009년 6월 8일); 스탈린주의 목록 <http://stalin.memo.ru/images/intro.htm> (2009년 6월 4일)
5. RGAE. F. 5675, op. 1, d. 165, l. 47.
6. RGAE. F. 7486, op. 19, d.102, l. 52.
7. “러시아인은 스탈린의 탄압에 더 무관심해졌다”, 『베도모스치』, 2017년 6월 2일.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7/05/23/690964-rossiyane-otnositsya-repressiyam-1/2>
8. Zh.G.송, 『러시아 고려인: 권력의 전능과 민족공동체의 무권리, 1920-1930』, 모스크바, 2013, 263-265, 424쪽.
9. “사회학자들은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 스탈린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기록했다”, 『베도모스치』, 2017년 6월 2일.
<https://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15/03/31/vse-bolshe-rossiyan-polozhitelno-otnosyatsya-k-stalinu-levada-tsentr>